

전공만족도의 성별 · 대학유형별 차이와 대학교육 서비스 영향요인 분석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by Gender and University Type and Analysis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Factors Affecting Major Satisfaction

한미희*

남서울대학교 교양대학

Mihee Han*

Department of Education, Namseoul University, Seoul 31020, Kore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성별, 대학유형별(국공립, 사립) 차이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여 총 1,220명으로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spss 23.0으로 t-test 그리고 입력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성별, 대학유형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둘째, 대학교육의 서비스 요인 중에서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생지원제도, 교수진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시설은 전공만족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인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와 학생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질 확보 및 학생들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구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major satisfaction among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university type(public, private), and what are the college education service factors that affect major satisfac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a total of 1,220 students'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3, an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by gender or university type.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factors of university educa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major satisfaction in the order of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 student support system, and faculty and educational facilities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major satisfaction. Through this, in order to increase major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which is the competitiveness of the universit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and educational contents to improvement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develop competence based on the needs of society and students.

Key Words: Curriculum, Educational Content, Faculty, Facilities, Student Support System,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http://dx.doi.org/10.14702/JPEE.2022.08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31 March 2022; Revised 13 April 2022

Accepted 18 April 2022

*Corresponding Author

E-mail: diaplus@nsu.ac.kr

I. 들어가기

전공(專攻, major)은 대학기간 동안 사회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능력 분야를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선택하게 되지만 무엇보다도 졸업 후 취업과 관련이 많기 때문에 진로 설정의 일환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공에 대한 만족은 대학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전술하였듯이 진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1]. 실제로 현재 대학들은 졸업 후, 학생들이 역량 있는 인재로서의 원활한 진출을 위하여 대학교육의 질과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2,3] 특히 입학자원의 감소로 인한 학생모집 경쟁은 이미 대학교의 현실이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대학 교육 서비스 또한 매우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에서는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여 입학한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직업인으로서 진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과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전공만족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된다. 홍길순(2005)은 대학의 교육서비스는 대학의 중요성(유형, 전공계열)이나 대학생의 특성(성별, 학년)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에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대학이 아닌 다른 서비스분야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갖는 전공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성별, 그리고 대학의 설립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고,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의 서비스 요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하여 대학이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의 질적확보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II. 이론적배경

A. 전공 만족도 개념 및 구성요인

전공만족도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에 대하여 기대한 만큼의 결과가 있는 지를 느끼고 인지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백정희(2007)는 전공교과를 공부하며 느끼는 주관적 즐거움 및 개인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 사고가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정의하였다[5]. 윤정현(2013)은 이와 같은 전공만족도는 교수에 대한 평가, 학우들과의 관계에서 갖게 되는 감정들 그리고 전공지식과 기술을 배양해 주는

교육과정 평가 등이 만족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으며[6]. Derry와 Brandenburg(1978)는 대학생들의 전공만족을 일반 요인, 학업요인, 교수요인의 세 개의 구성요인으로 소개하고 있다[7]. 김주희(2004) 또한 전공만족도를 교과과정, 진로방향, 학교환경으로 3가지 하위 요인을 제안하였으며[8], 이형룡, 박슬기(2010)는 호텔·외식·관광전공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의 하위 요인을 교수진, 전공교육, 학습 환경, 공정한 평가 등으로 설정하였다[9]. 김계현, 하혜숙(2000)은 학과만족이라는 개념으로 교과, 관계, 일반, 인식 만족의 네 가지를 제시하였는데[10] 전공만족도는 위와 같은 내용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B. 교육서비스와 전공만족도

최근 들어 많은 대학들이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크게 선택되어지는 것은 교육서비스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는 지속성을 갖고 개선이 되어 만족도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사료된다. 특히 대학교육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stin(1993)은 전공만족도는 학습시간, 또래집단과의 관계, 사회경제적 특성과 관련이 있고 특히 교수진이 상담, 수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정적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다[11]. 장문영(2005) 또한 무용 학생들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공의 만족도 결과가 교수요인에 의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밝혔으며[12], 이외에도 Braskamp 등(1979)의 학과 만족도의 연구를 보면 이는 성별, 전공, 학년 등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특히 교수진의 변인, 즉 연봉, 연령, 연구실적 등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13]. 물론 위와 같이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학생들은 자신이 다니길 희망 했던 대학에 들어온 경우 학교와 해당 전공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대학에서의 학업생활도 충실히 수행하게 되어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14], 특히 자신의 전공이 적성 및 흥미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대학생활 동안 전공만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은 학생들의 개인적 변인으로서 성별, 성적, 적성, 지능, 재능 등에 영향을 받지만, 이외에도 부모나 교사, 사회계층, 교육제도 등의 외부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으며 임용수(1993)는 학생들이 선택한 전공 만족도는 그들의 진로 의식 형성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였다[15]. 위와같이 전공만족도는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대학은 이것

에 대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 1 패널의 7차년도 자료(2016년)를 활용하여 대학교 1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추출된 표본 2,351명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설문 응답의 결측치를 포함한 설문을 제외하였으며, 최종 1,220명의 설문을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개인 변인과 대학변인 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남학생 575명(47.1%), 여학생이 645명(52.9%)이며, 대학생들이 스스로 보고한 가정의 경제수준을 보면, 대학을 설립 유형으로 분석했을 때, 국공립은 273명(22.4%), 사립대학은 947명(77.6%)로 나타났다.

B.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은 KCYPS 중1 패널의 7차 자료(2016년)에 포함된 자료이다. 제7차년도 본 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에 위탁하여 2016년 10월에서 12월까지 약 세 달 간에 걸쳐 실시된다. 청소년 조

사는 조사원과의 개별 접촉을 통한 면접조사 방식으로, 보호자 조사는 컴퓨터를 활용한 전화조사(CATI : 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KCYPS 패널 조사에서 측정된 전공만족도는 1문항으로 그 내용은 “현재 재학중인 전공(학부, 학과)에 대해 얼마나 만족 하십니까”이며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학생활 서비스 요인은 총 5개 영역으로, 강의 및 교육내용, 교수 및 강사진, 강좌 또는 교육과정, 학교 교육시설,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이고, 각 영역별 만족도를 묻는 1개 문항으로 구성된다. 모두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합산 값이 클수록 각 영역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C.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sion 23.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첫째, 빈도, 최소점수, 최대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둘째, 학생의 성별 및 대학설립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교육내용,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시설, 지원제도)의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 t-test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 간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넷째,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엔터 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category	variable	division	frequency	percent(%)
personal variable	gender	mail	575	47.1
		femail	645	52.9
variable of University	university type	public	273	22.4
		private	947	77.6

표 2.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Variable	No.	Minimum score	Maximum score	Mean	SD	
major satisfaction	1220	1	4	2.93	.689	
educational contents	1220	1	4	2.87	.584	
						university
education	1220	1	4	2.91	.622	
service factors	1220	1	4	2.84	.630	
						educational facilities
						Student Support System
	1220	1	4	2.82	.705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IV. 연구결과

A.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본 연구의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의 기술통계에 대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의 결과 전공만족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4점 만점에 2.93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중 교육내용은 2.97, 교수진은 2.91, 교육과정은 2.84, 교육시설은 2.82, 그리고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2.82로 나타났다.

B. 성별 및 대학설립유형에 따른 전공만족도 및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 차이 검증

학생들의 성별과 대학의 설립유형에 따라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는 표 3, 표 4과 같다.

표 3, 4의 결과, 성별과 대학설립유형에 따라 전공만족도

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의 만족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학의 지원제도에 관해서 대학 설립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p < 0.05$),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의 서비스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공만족도는 대학교육의 서비스 요인과 모두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p < 0.01$). 그 중에서 교육내용에 대한 만족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r = 0.526$), 지원제도와는 가장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r = 0.270$).

D. 대학 및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가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입력(enter) 방식의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의 결과, 대학교육에서 교육내용, 교수진, 교육과

표 3. 성별에 따른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 차이검증

Table 3.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by gender

Variable	Male			Female			p-value	
	N	Mean	SD	N	Mean	SD		
major satisfaction	575	2.92	.711	645	2.94	.669	.621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factors	educational contents	2.86	.618	.618	645	.552	.552	.563
	faculty	2.92	.644	.644	645	.602	.602	.659
	curriculum	2.83	.642	.642	645	.620	.620	.837
	educational facilities	2.83	.683	.683	645	.688	.688	.754
	Student Support System	2.83	.732	.732	645	.682	.682	.816

* $p < .05$ ** $p < .01$ *** $p < .001$

표 4. 대학유형별에 따른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 만족도 차이검증

Table 4.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by college type

Variable	Public Univ.			Private Univ			p-value	
	N	Mean	SD	N	Mean	SD		
major satisfaction	273	2.92	.728	947	2.93	.678	.767	
Satisfaction of university education service factors	educational contents	273	2.88	.587	947	2.88	.583	.978
	faculty	273	2.91	.594	947	2.90	.630	.907
	curriculum	273	2.84	.613	947	2.84	.635	.829
	educational facilities	273	2.90	.625	947	2.82	.701	.029*
	student support system	273	2.97	.688	947	2.82	.705	.000***

표 5.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분석

Table 5.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variables

Variable	①	②	③	④	⑤	⑥
major satisfaction	1					
educational contents	.526**	1				
faculty	.450**	.652**	1			
curriculum	.489**	.624**	.602**	1		
educational facilities	.284**	.339**	.338**	.408**	1	
student support system	.270**	.277**	.238**	.343**	.459**	1

① 전공만족도, ② 교육내용, ③ 교수진, ④ 교육과정, ⑤ 교육시설, ⑥ 지원제도

표 6. 다중회귀 분석을 통한 대학 및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6. The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of college students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ivision	B	SE B	β	t	p
(Constant)	.649	.099		6.528	.000
educational contents		.040	.303	9.011	.000
faculty		.036	.104	3.172	.002
curriculum		.036	.199	6.031	.000
educational facilities		.028	.028	1.016	.310
student support system		.026	.080	2.984	.003

$R^2 = .333 \Delta R^2 = .330 F = 121.331 (p = .000)$

정, 교육시설, 지원제도가 전공만족도를 설명하는 정도가 33.3%($R^2=0.333$)로 나타났으며,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121.333, p<0.001$).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표준화계수를 파악한 결과, 교육내용 만족도(0.303), 교육과정 만족도(0.199), 교수진 만족도(0.104), 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 만족도 (0.080)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시설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 ($p>0.05$). 즉,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는 교육내용과 교육과정, 교수진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공차 (Tolerance)와 VIF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Tolerance 값은 1.0 미만, VIF 값은 10 미만이고, Durbin-Watson 값이 1.986로 2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의 7차년도에서 대학생 1,220명을 대상으로 한국 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

였다. 이를 위하여 전공만족도가 학생의 성별, 그리고 대학의 설립유형별(국립, 사립)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요인(교육내용,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시설, 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균이 높게 나타났으나 성별 및 대학유형(국립, 사립)에 따른 전공만족도와 대학교육 서비스 4개 요인(교육내용,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시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직 지원제도에서만 국립 대학생들이 사립 대학생들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생지원제도(장학금, 해외연수, 학점교류)는 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본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은 교육내용, 교육과정, 지원제도, 그리고 교수진의 순서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들 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에서는 교수요인이 가장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대학에서 좋은 교수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공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그 내용을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교육에서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과 같은 교육의 질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의 성장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시사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남서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참고문헌

- [1] Y. K. Au, "The relation between the career counseling activity,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ation: Regulating effect of decision-making criterion for majo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2, no. 5, pp. 1793-1811, October 2011.
- [2] C. Wulff, L. R. Bergman, and M. Sverke, "General mental ability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and work: A longitudinal study from ages 13 to 48",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30, no. 12, pp. 398-408, July 2009.
- [3] S. K. Jeon and J. H. Wh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traits, and percep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of college students," *The Academy of Asian Culture Studies*, vol. 8, no. 3, pp. 699-714, June 2017.
- [4] G. S. Hong, "A study on each level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loyalty -focused on quality of college educational service," Ph. D. dissertation, Myong Ji University, 2005.
- [5] J. H. Baik, "Relationships among body esteem, learning attitudes and major satisfaction of Dance Students in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2007.
- [6] J. H. Yun, "A study on relationship with selection factors of tourism majors, major satisfaction, and learning attitude and achievement," *Journal of the Korean Tourism and Leisure Society*, vol. 25, no. 4, pp. 239-257, May 2013.
- [7] S. Derry and D. C. Brandenburg, "Students' ratings of academic programs: A study of structural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0, no. 5, pp. 772-778, October 1978.
- [8] J. H. Kim, "The Relation between the satisfaction degree at major and the career decision scale of dance majors," Master's thesis, Sang Myung University, 2004.
- [9] H. R. Lee and S. G.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vol. 13, no. 1, pp. 79-105, February 2010.
- [10] K. H. Kim and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 no. 1, pp. 7-20, February 2000.
- [11] A. W. Astin,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francisco: Jossey-Bass, 1993.
- [12] M. Y. Chang, "There lationship amonge ollege students' satisfactionon their majors, attributional style and career decision level," Master's thesis, EwhaWomans University, 2005.
- [13] L. A. Braskamp, S. L. Wise, and D. D. Hengstler,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part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71, no. 4, pp. 494-498, 1979.
- [14] W. H. Kim, "Exploratory cross cultural study of alma mater identification," *Th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15, no. 2, pp. 25-45, July 2002.
- [15] Y. S. Lim, "A study on career socialization in college students with the focus on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with major,"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al Affairs Kyung Hee University*, vol. 9, pp. 107-129, 1993.



한미희 (Mi-hee Han)_정회원

1991년 2월 : 동국대학교 국민윤리학과 졸업
2003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2005년 2월 :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박사
(관심분야) 심리학, 직업 및 진로설계, 리더십, 교수법 등